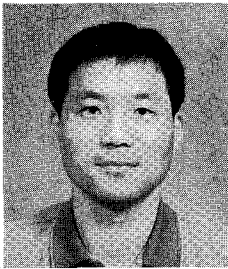


일반 육계와는 다른 재래닭의 사양관리와 유통현황



이진홍

(푸른농원 대표/한국재래닭유통협회장)

1. 재래닭!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는 경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기초적인 질서만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재래닭(개량토종닭)을 사육하고 유통하는 분들도 양계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인 것이란 많이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육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소독, 백신접종, 기록관리 등과 같은 것이며 농가에서 이를 철저히 실천할 때 첨단 사육기술 보다 더 큰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재래닭 업계에 종사하면서 재래계 분야가 축산업계에서 가장 영세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육농가의 영세성과 부업적 사육형태는 기본적인 것조차 소홀할 뿐 아니라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영으로 수요는 있어도 공급할 수 없을 때가 많았으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상시적이었다. 몇 년 전부터 재래닭에 관심을 가진 몇 개 업체가 체계적인 사육과 유통에 전업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재래닭 업계에 큰 변화의 시발점이 아닐까 한다. 경기도의 C영농법인은 유원지나 도심외곽의 식당에 봄과 여름철에 주로 판매하는 기존 농가의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H백화점과 N백화점에 연중 공급하여 가정에서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경북의 G주식회사는 재래계 최초로 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구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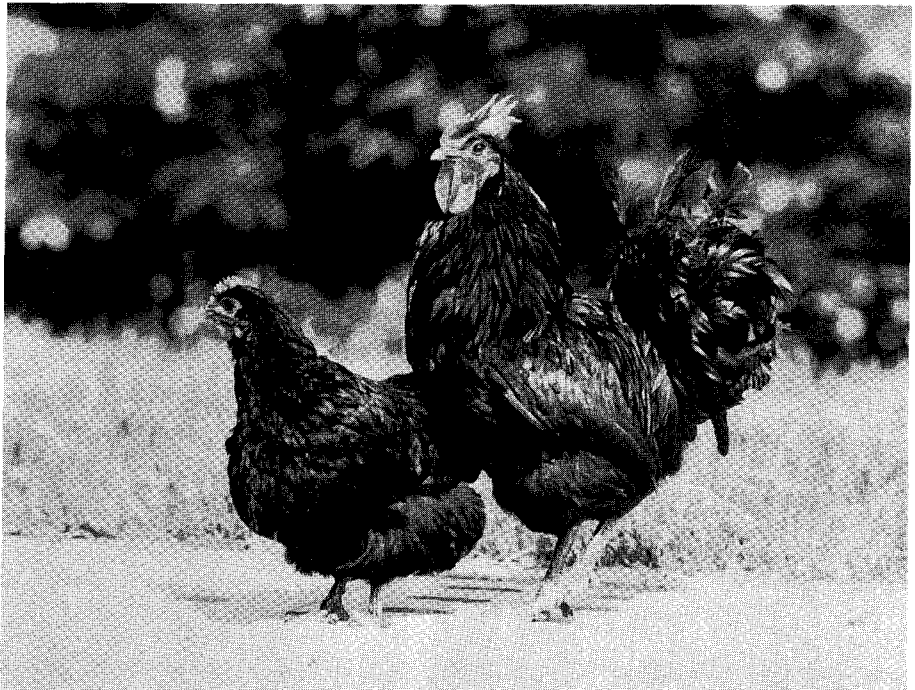
였으며, 흡쇼핑을 통한 판매와 포장 및 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재래닭 업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한다.

2. 충분히 검토 후 재래닭을 사육하자

지금까지 재래닭을 사육하는 대부분 농가의 사육동기를 살펴보면 주위 사육자들의 권유 또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사육을 시작하였으므로 경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철저한 영농계획이 부재하여 만족할만한 경영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새롭게 재래닭에 뜻을 두고자하는 농가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생산물량을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농가 실정에 맞게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존의 재래닭 유통형태를 보면 연중 판매량의 80% 이상이 3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계획적인 입추로 인해 8월 이후에 출하할 물량을 과다하게 보유한 많은 농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육 의욕을 상실한 것을 접할 수 있었다. 8월 이후 과다하게 보유한

것도 문제지만 부족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재래닭은 다른 양계분야와는 달리 부족 시에는 수입으로 대체할 수도 없으며 오직 국내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래닭은 사육기간이 길어 사육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재래닭에 관한 몇 권의 책이 축산기술연구소와 대학에서 발행된 것이 있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으나 사육농가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 같다.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단위 개체 당 마진폭이 좋은 점에 현혹되어 사육기술 부족과 생산물의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사육을 시작하는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재래닭 사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경험보다 기록에 의존하자

우리 선조들은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처음 재래닭을 시작할 때 재래닭에 관한 자료를 구하면서 느낀 것이다. 재래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닭을 연구하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남겨둔 자료가 빈약하여 일본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 자료는 일본사람들이 침략기간에 우리닭의 색깔은 이렇고 벗은 저렇고 산란율은 얼마나 된다고 기록한 것이다. 더 이상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록에 의존하는 경영으로 사육농가들이 변했으면 한다. 얼마 전 사육자 단체에서 경영지도를 부탁하여 토의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록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아직 많은 농가들이 기록에 소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기록하지 않고는 합리적 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몇 가지는 기록을 하라고 당부 한 적이 있다. 몇 마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설하는지 그리고 몇 시에 점등을 하고 소동을 하는지는 꼭 기록 할 것을 당부한 일이다. 생산원가를 산출하려면 사육 중에 투입된 사료비 약품비 광열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은 원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은 최소한 기록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에 치중하자

얼마 전에 가공시설에 투자의사를 가진 분

들과 함께 견학 차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라인을 갖춘 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다. 생산라인에 들어갈 때 분명히 소독과정이 있는데 안내자는 귀찮고 불편하다며 빨리 통과하라고 한다. 대형업체에서 조차 소독에 철저하지 못함을 보고 양계업계 전반에 질병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식이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 적이 있다. 질병은 발병 후에는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를 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영의욕을 잃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에 치중할 때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재래닭 사육농가들이 가장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외부에서 오는 출입자와 출입차량 그리고 출입물품의 소독관리에 철저함과 동시에 축사 및 주변환경의 소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계절은 세균의 번식활동이 왕성하므로 가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급수기 소독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재래닭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은 뉴캐슬, 추백리, 콕시듐, CRD, 마λεκ, 계두등의 순으로 1994년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연구사업 보고서에 남아있다. 모두가 발병 시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는 질병들이지만 아직도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있다.

또한 부화업을 하는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접종해야 할 마λεκ백신 등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아 분양농가에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재래닭 사육농가에서 가장 소

홀하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백신 중에 계두백신 접종이 아닐까한다. 한 마리 씩 일일이 접종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제대로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두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재래닭은 사육기간이 길어서 계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접하면 대다수 농가가 피해를 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접종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육농가에서는 절수방법과 투여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백신 투여 후 빠른 시간 내 먹도록 해야 하며 음수접종이나 점안, 비강, 분무접종 등 질병에 적합한 접종방법을 선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종의 후유증을 우려하여 접종을 기피한다는 농가들이 아직도 있다면 빠른 사고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5.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재래닭 사육농가를 방문하면 계사의 크기나 구조 및 사육시설면이 일반 양계농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게 한다. 재래닭은 일반양계 보다 훨씬 행동 반경이 넓다는 것과 서열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양계 기준으로 사육하면 계군의 고른 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축사평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암수분리 사육으로 암탉의 육성과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헛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헛대는 약추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일

부농가에서는 헛대 위에 급이, 급수기를 설치하여 대피한 약추들에게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사 바닥과 함께 급이기와 급수기의 수량도 충분히 설치하여 여러 마리가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약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체계적인 유통질서가 시급하다

재래닭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유통체계인 것 같다. 우선 닭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육기간이 90일에서 150일까지 많은 차이가 있고 상인들은 사육기간을 기준으로 개량토종닭 또는 재래토종닭이라고 구분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는 상인들과 기준차이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 병아리유통의 무질서 또한 업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부화장에서 검정되지 않은 초생추를 농가에 공급하는가 하면 외국종을 국산재래닭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재래닭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되는 초생추 및 성계가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로 생산되고 운반되는 점도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업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재래닭업을 선택할 때 신중할 것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사양관리를 당부한다. 그리고 사육이상으로 판매도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경영하는 자세가 성공경영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양계**